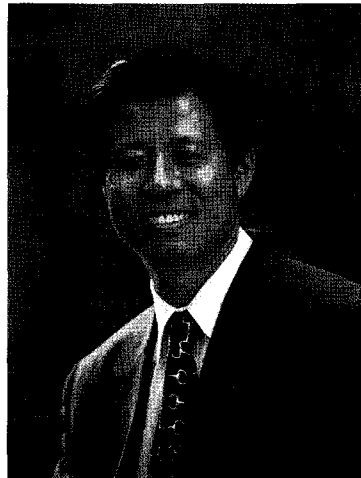


디지털 시대의 빅뱅을 준비하는 사고와 리더십



신재철/
한국IBM(주) 대표이사

디지털 사회를 가능케 한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이론이 있다.

우선 “컴퓨터의 성능은 계속 배가되는 반면 가격은 떨어지고 라이프사이클도 짧아진다”는 이론이다. 반도체의 경우 집적도가 18개월에서 24개월만에 두배가 된 반면 그 크기와 가격은 계속 반감되었고 이에 힘입어 컴퓨터의 성능 또한 해마다 배가된 반면 성능대비 가격은 계속 떨어졌다. 1970년부터 2030년까지 60년간 반도체의 성능은 1조배로 커지는 반면 정보처리비용은 1조분의 1로 줄어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만약 자동차 산업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오늘날 우리는 자동차 한대 값이 1백원 정도에, 1리터면 서울-부산을 10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이론은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지면 비용은 산술적으로 증가하지만 그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5천만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 라디오가 36년, TV가 13년 걸린 반면 인터넷은 불과 4년밖에 안 걸렸다. 더욱 놀랄 만한 것은 인터넷상의 데이터 전송량은 100일만에 두배씩 증가하고 있으며 통신량 중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8년 50%에서 2003년에는 9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이 융합되면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이에 힘입어 우리나라에도 e-트레이딩, e-뱅킹, e-쇼핑, e-구매 등 e-비즈니스가 사회전반에 확산되면서 디지털 경제, 네트워크 사회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 특히 증권 분야에서는 지난 7개월 동안 5대 증권사의 사이버 증권거래 실적이 111조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4배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이 이미 네트워크 경제와 네트워크 사회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겠다. 그러나 미래의 발전에 비하면 지금까지의 성과는 아무 것도 아니다. IBM의 거스너

회장은 지난 6월 미국 상하원 합동 경제위원회 청문회에서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에 의해 창조된 네트워크 사회는 30년의 기술발전 주기 가운데 처음 5년의 단계에 와 있을 뿐이다”라고 전제했다. Sony의 이데이회장도 최근 ‘향후 25년간은 디지털 시대의 폭발기로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터넷으로 자동차를 사고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5년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듯이 앞으로 선거도 굳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며 나아가 세계인이 공통 현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일제히 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을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21세기 디지털 사회는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우리의 마인드는 아직도 국지적이고 편향적인 사고의 틀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따라서 변화를 미래적인 시각에서 살피고 대응하는 안목과 사고가 시급하다. 글로벌 시장과 인터넷이라는 지구적 미디어의 확산에 걸맞는 수준으로 우리의 마인드를 넓혀야 한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각 분야에서 이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아날로그 전화 시대에 걸맞던 제도와 관행은 더 이상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적합치 않다. 앞서가는 나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과감히 뜯어고치는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

21세기 글로벌 네트워크 사회에서 한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사회 전반에 걸쳐 조성되는 디지털 인프라에 더해 디지털 사고를 갖추고 디지털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확산하는 데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 일에 정보산업 종사자들의 사명감과 리더십, 그리고 컴퓨터 기자클럽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다.

KCRC